2018년 8월호 (제338호)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 촌 선 조 정 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독 서 가 이 열 친 심

勉爾孜孜 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면 이 자 자 석 촌 음

老矣無能 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노 의 무 능 도 자 회

頭邊歲月 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두 변 세 월 고 침 침

遺子滿籯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유 자 만 영 금

不如敎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불 여 교 일 경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차 언 수 담 박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위 이 고 정 녕

"제7회 둔촌백일장" 성대히 개최

-500여 참가자 모여 대성황 이뤄-

2018년 7월14일(토요일) 강동문화원(원장 양재곤)은 강동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7회 둔촌백일장"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양재곤 문화원장과 대종회 옥재도유사를 비롯한 심재권 강동구 국회의원, 강동구청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강동구 의회의원 등 많은 지도자 여러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는 예년보다 많은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오해윤 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문화원장 인사, 대종회 도유사인사, 내빈축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이어서 글제 발표와 함께 본 백일장이 진행되었다.

글제는"둔촌선생과 둔굴, 아버지의 뒷모습, 반딧불이, 종이컵, 보따리"로서 박희 심사위원장의 설명에 이어 참가자들의 능력을 겨루는 장이 시작되었으며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7월17일(화요일) 강동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아래 수상자 명단 참조)되었으며 시상식은 오는 9월19일(수요일) 오후 5시에 강동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상금은 금년 제7회 행사부터 둔촌백일장의 위상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원과 우리대종회가 협의하여 대폭 증액하였다.

■ 제7회 둔촌백일장 수상자 명단

구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성명	학교	성명	학교	성명	주소
장원	조은솔	오남초 5학년	박소은	한영고 1학년	임종형	강동구 명일동
차상 (2)	이선우	대명초 3학년	명세나	광문고 1학년	석희숙	강동구 둔촌동
	오채호	한산초 5학년	김나연	한산중 2학년	김명식	마포구 공덕동
차하 (5)	정하은	신가초 5학년	이예은	광문고 2학년	최규청	강동구 둔촌동
	김하늘	명덕초 4학년	이윤기	동북중 3학년	최재호	강서구 방화동
	최지윤	명원초 3학년	박서영	한영고 2학년	이진선	송파구 송파동
	이하은	대명초 6학년	최지영	한영고 2학년	김혜순	강동구 둔촌동
	이시온	구남초 2학년	류민균	광문고 2학년	김민경	강동구 둔촌동
입상 (10)	이예준	선린초 4학년	신주희	청량중 2학년	황정미	강동구 상일동
	박소은	상일초 3학년	신서현	광문고 1학년	오세진	강동구 둔촌동
	모영채	강일초 5학년	박선우	광문고 1학년	김현아	강동구 천호동
	강수연	한산초 3학년	김효은	광문고 1학년	김주현	강동구 길동

구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성명	학교	성명	학교	성명	주소
입상 (10)	김하린	명덕초 3학년	김윤기	광문고 1학년	김은미	강동구 명일동
	박연아	잠현초 3학년	김예인	하남고 2학년	신여림	강동구 둔촌동
	최지요	방산초 5학년	김소영	동국대부속여고 3학년	조윤아	광진구 구의동
	이나윤	한산초 2학년	윤민서	광문고 2학년	정란	하남시 선동
	이승아	한산초 4학년	이사랑	광문고 2학년	이채린	강동구 고덕동
	권유빈	성내초 4학년	최서윤	송림중 3학년	김경준	강동구 천호동

구분	초등부		청소년부		시상
	성명	학교	성명	학교	
특별상 (5)	배규민	방산초 6학년	최서연	청량중 3학년	강동구청장 시상 (상장만 수여)
	최윤영	강명초 6학년	정다희	청량중 3학년	
	신유정	한산초 6학년	이채현	청량중 2학년	
	박준우	거여초 6학년	송주연	신명중 3학년	강동구의회 의장 시상 (상장만 수여)
	변지민	명덕초 4학년	김민주	청량중 2학년	

둔촌백일장 인사문

안녕하십니까?

廣州이씨 대종회 도유사 李玉載입니다.

오늘 제7회 둔촌백일장을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백일장에 참가해 주신 청소년 및 일반 문학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정훈 신임구청장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강동문화원 양재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주이씨는 경기도 광주를 본향으로 하는 문중으로, 둔촌이집선생께서는 우리문중의 중시조(中始祖)이시며, 이곳 강동구에는둔촌선생에 대한 역사와 전설이 곳곳에 깃들어 있어 우리문중으로서는 매우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지역이며 선생께서 태어나신지 69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둔촌 이집(遁村 李集)선생의 효행과 충절, 그리고 선생께서 남기신 학문과 도덕정신 등, 숭고하신 뜻을 선양(宣揚)하고, 아울러 강동구 내 문학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청소년과 일반인 여러분들의 문학적 소양을 발굴 육성함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참여 인원도 많아지고 작품 수준도 향상되고 있어 저의 문중에서는 본 백일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위상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 문화원측과 협의하여 금년부터는 입상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금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문학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 오신 실력과 타고난 소양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기 바라며, 더욱 노력하시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일곱 번째 맞이하는 "둔촌백일장" 개최를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8년 7월14일

廣州李氏大宗會 都有司 李玉載

2018년도 모범종인 및 효열상 수상자 소개

각 지파종회에서 추천되어 대종회 임원회의에서 선정한 모범종인 및 효열상 수상자로 지난 6월2일 둔촌선조님 생신제 시 시상된 자랑스러운 종인들입니다.

■ 모범종인(9명)

성명	생년	소속지파	공 적 사 항
용화(容華)	71세	사인공	평소 종사에 대한 긍지와 숭조사상이 투철하여 종인원간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돈목하며 종회의 각종 행사는 물론 40여 년간을 종사에 헌신 봉사하는 등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있음.
주현(柱賢)	74세	광릉부원군	주현 종인은 현재 영천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선조님에 대한 투철한 숭조정신과 종친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종회 행사시마다 원거리에서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숭조와 돈목의 자리를 함께 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됨.
상훈(相勳)	70세	문경공	본 종인은 현재 대종회, 문경공종회, 숭덕재공 종회, 대위원직과 충희공종회 대체재산심의위원의 종직을 맡고 있으며 종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타 종인의 모범이 되고 있음.
승수(勝洙)	71세	문경공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회발전과 선대조에 대한 숭모의 마음이 높아 수시로 조상묘소를 찾아 솔선수범하여 묘소를 정화하는 등 선대 유적관리에 남다른 정성을 보이는 모범 종인 임.
이봉순(李鳳順)	64세(全州)	광천부원군	광천부원군파 임실종회 소속으로 종친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어려운 종친을 돌보며, 선조님들 묘소를 주기적으로 답사하여 친부모님 묘소 돌보듯 하여 종친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자비를 들여 종사일을 솔선수범하는 모범 종인 임.
창훈(昌勳)	48세	광원군	광주 · 전남종친회 광래 부회장의 외아들로서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2014년도부터 원발성 관절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부친 또한 아들의 엄청난 병원비 뒷바라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종인임.
용무(容茂)	71세	참판공	어려서부터 선친을 따라 종사에 참여하며 배운 영향으로 성장하여서는 현재 광주 · 전남종친회 부회장 및 감사, 청장년회 임원, 보촌서원 관리위원 등 종사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종친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범종인 임.
기진(箕鎭)	75세	좌통례공	본 종인은 평소 남다른 숭조정신과 애향심을 가지고 칠곡종회의 힘들고 어려운 사업들인 입향조 승사랑공 묘소의 확장과 성역화, 광이칠곡회관 마련, 석담사당 및 문익공사당 재축, 등 주요사업들을 완료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주관하며 종친들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음.
종민(鍾玟)	95세	목사공	고령의 연세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종회 각종 행사는 물론 문중행사에도 적극 참석하며 해박한 식견과 경험으로 종사업무에 많은 조언을 해주는 모범종인 임.

■ 효열상(9명)

구분	성명	생년	부(父 · 夫)	소속지파	공 적 사 항
효자	준명(浚銘)	45세	父 容大	사인공	어머니가 20여 년 전 중풍으로 병석에 들자 대소변을 수발하며 지성으로 간병해 오던 중 부친(전 사인공종회 총무)이 5년 전 위암으로 수술을 하고 병석에 있을 때 생계를 꾸려가며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간병해 오고 있는 효자 임.
효부 열녀	이정옥 (李貞玉)	84세 (慶州)	夫 故 鍾星	광릉부원군	이정옥 여사는 20세의 나이로 광릉부원군 18대손 종성과 혼인하여 슬하에 4남매를 두었으며, 33세가 되는 해에 부군이 병사함에 따라 홀로 시모를 모시고 4남매를 양육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광릉부원군의 불천위제를 비롯하여 세일사 등 각종 행사시 손수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효부이자 열녀 임.
열부	창재(昌載)	84세	父 故 容植	광천부원군	슬하에 2남2녀의 자손을 두고 다복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17년 전 부인이 희귀 뇌병변장애를 앓게 되어 오랜 세월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나 오직 부인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병간호를 해 오고 있는 열부종인 임.

구분	성명	생년	부(父 · 夫)	소속지파	공 적 사 항
효부	최윤순 (崔閏順)	60세 (慶州)	夫 根載	광원군	남편이 공직에서 퇴직하자 함께 귀촌하여 현재 96세, 90세이시며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시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고 있으며, 위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손수 운전하여 병원으로 모시고 간병을 하며 경로효친을 실천함으로서 주위의 칭송이 자자함.
효자	재준(在濬)	36세	父 文煥	좌의정공	부친이 10여 년 전 작고하여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 본인 또한 장애5급으로 홀로된 모친을 극진히 모시는 등 효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있음.
효부	시옥(時玉)	55세	父 斗煥	좌의정공	1987년 광산김문에서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훌륭히 양육하여 출가시켰으며, 5급장애인 남편을 보살피면서도 친정부모에게도 극진한 효행을 잊지않는 효부요 열녀 임.
효부	김복실 (金福實)	60세 (金海)	夫 容成	참판공	3남4녀의 대식구집에 시집와 시동생들을 모두 가르치고 키워 시집장가 보냈으며, 2000년에는 시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18년간을 대소변을 받아내며 수발을 들어왔으나 3년 전 시어머니마저 노환과 치매를 앓으시는 등 시련의 연속 임에도 변함없이 시부모 병수발을 해 오고 있는 효부 임.
효자	은래(殷來)	59세	父 秉英	문숙공	현재 배우자가 출타하여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양봉업과 산불감시원으로 일하며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노환의 아버지와 치매와 폐암으로 투병중인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생활하는 효자 임.
열녀	박경숙 (朴慶淑)	61세 (務安)	夫 故 容億	문숙공	남편이 문숙공파종회 유사와 총무일을 10여 년간 수행하고 사망 직전까지 종회 감사로서 종사에 희생과 봉사를 다 해왔으며, 본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배우자 사망 후 채무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헌신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열녀 임.

재경화수회 7월 정기모임 가져

지난 7월16일(월요일) 오후6시 재경화수회(회장 명환)는 대종회 지하회의실에서 7월 제388차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본 회의에 앞서 6시부터 특강시간을 가졌는데, 이날 특강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에 관해 본문 21대손이며 전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을 역임했던 중재 사장께서 강의를 맡아 준비해온 자료를 빔프로젝터를 통해 발전의 원리와 전기가 가정과 산업에 이용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원리와 우수성, 경제성, 안전성에 대하여 30여분에 걸쳐 열띤 강의를 해주어 참석 회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강의를 마치고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진 후, 현 정권의 탈 원전정책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하였다.

강의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본 회의가 시작되어 국민의례, 회장인사, 도유사 인사, 공지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장인사에서 명환회장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고 전하고 특강을 해준 중재 사장께 감사함을 전하였으며, 이어서 대종회 옥재 도유사로부터 현재 대종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암정, 창녕 운곡서원 구기비 보수공사와 둔촌선조 신도비 담장설치공사 진행상황 그리고 지난 7월 14일에 있었던 강동문화원 둔촌백일장 개최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끝으로 공지사항을 통해 7월22일 산악회 행사계획과 8월중에는 화수회 모임이 없음을 전하고 이날 모임을 마쳤다.

–화수회 총무 충교 記–

산악회 부안 개암사와 격포해수욕장 다녀와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재석)는 지난 7월22일(일요일) 회원 31명은 전북 부안 소재 개암산 둘레길과 변산반도 채석강을 다녀왔다

아침7시30분 왕십리 모임장소를 출발, 맑고 무더운 날씨 속에 오전11시경 1차 목적지인 개암사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려 산악회 성수 총무의 안내에 따라 둘레길에 접어드니 잠시 후 "능가산개암사(楞伽山開巖寺)"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일주문이 나타났다. 일주문을 지나 조금 오르니 시야가 확 트이며 멀리 능가산 정상의 거대한 울금바위를 배경으로 한 천년고찰 개암사가 한눈에 들어오며 절경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곳 개암사(開巖寺)는 백제의 망국 혼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울금바위가 있는 주류산성 일대는 백제부흥군이 최후까지 저항했던 장소라고 하며, 개암사의 기원은 삼한시대로 거슬러 변한의 문왕이 지은 궁궐을 백제 무왕35년에 묘련왕사가 절로 바꾸고 이름을 개암사로 칭했으며, 백제 멸망 직후인 신라 문무왕 16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에 의해 사찰의 규모를 갖추었고, 1313년 고려 충숙왕 때 원감국사가 다시 중창하여 대찰로 번성을 누려오다가 임진왜란 시 모두 불타 폐허가 된 것을 조선조에 들어와 1658년 효종 9년에 대법당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개암사를 둘러보고 관망한 일행은 발길을 다시 숲길로 옮겨 삼삼오오 정담을 나누며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오니 시간은 어느새 12시 반이 지나고 있었다. 다시 차에 올라 한참을 달려 예약된 식당(금수강산 토종닭백숙)에 오후1시가 넘어 모두 출출한 상태에서 도착하였다. 잘 차려진 음식과 특이하게 요리된 백숙은 모두에게 흡족한 진수성찬이었다.

재석회장의 인사와 재진 대종회 전 도유사의 격려의 말을 들은 후 건배와 식사를 나누며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다시 차에 올라 다음코스인 변산 격포해수욕장에 도착하니 시간은 오후3시를 지나고 있었으며, 일행은 백사장과 채석강 입구 바위위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무더운 폭염 속 채석강 관람은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발길을 돌려 귀경길에 올랐다.

–산악회 총무 성수 記–

遁村先祖 이후의 역사(66)

이 面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할 譜學을 上代로부터 계속하여 연재하고 있습니다.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공 휘 행검(諱 行儉) 행장

-광릉부원군(휘 극배) 9대손-

숙종7(辛酉 1681)년 생으로 부원군(諱 克培)의 9대손이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상원(象元)의 증손(曾孫)이다.

숙종 31(乙酉 1705)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훈정(訓正)을 거쳐 함남 영흥부사(永興府使) 외에 9곳의 부사(府使)와 목사(牧使)를 역임하고, 경북함북 전라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을 역임하였다.

영조4(戊申 1728)년 경기 여주목사(驪州牧使)로 있을 때에 인적(璘賊)의 변란(變亂)이 일어나서 죽산 소속(竹山所屬) 7읍군사(七邑軍士)를 거느리고 용인 양지 좌찬현(陽智 佐贊峴)에서 적을 섬멸하여 평난진 무공신(平難振武功臣)에 녹훈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5위도총부 경기수군절도사(五衛都摠府 京畿水軍節度使) 및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 京畿 · 黃海 · 忠淸 3道의 水軍을 통할하던 從2品 관원)에 이르렀다.

영조26(己巳 1749)년 별세하니 향년69세로 왕이 관원(官員)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으며 묘소는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龍仁市 南四面 鳳舞里) 선고묘하(先考墓下)에 있다.

참판공(參判公) 휘 승원(諱 承源) 行狀]

-문경공(휘 극감) 9대손-

공(公)의 자(字)는 효백(孝伯)이고 호(號)는 삼기재(三棄齋)이며, 휘(諱)는 승원(承源)으로, 현종 2년(1661) 한성 연화방(漢城 蓮花坊)에서 탄생했다. 문경공 휘 극감(文景公諱克堪)의 9代孫이요. 병조판서 숭덕재공(崇德齋公) 휘 윤경(諱 潤慶)의 6대손이며, 고조(高祖)의 휘(諱)는 사온(士溫)이니, 홍산현감(鴻山縣監)으로, 가선대부 호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증직(贈職)되었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필성(必成)이니, 통훈대부 흡곡현령(通訓大夫歙谷縣令)과, 강릉진 병마절제도위(江陵鎭兵馬節制都尉)를 지냈으며, 영사종훈(寧社從勳)으로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겸 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의 증직(贈職)을 받았다. 왕고(王考)의 휘(諱)는 건징(健徵)이고, 호(號)는 의재(義齋)이니, 충의위 진위장군(忠義衛振威將軍)으로 통정대부 이조참의겸 충의위 진위장군(通政大夫吏曹參議兼忠義衛振威將軍)에 증직(贈職)되었다. 황고(皇考)의 휘(諱)는 경만(卿晩)이니,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서 추은(推恩)을 입어, 가선대부 이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증직(贈職)되었다. 양대(兩代)에 걸쳐 추은(推恩)되니, 이는 公이 귀(貴)하게 된 때문이다. 선비(先妣)는 정부인(貞夫人) 여산송씨(礪山宋氏)이니 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 송극(宋極)의 따님이다.

公은 어려서부터 문학(文學)에 재능(才能)이 있어, 세상(世上)에 이름이 났는데, 숙종 25년(1699) 생원시(生員試)에 장원(壯元)으로 급제하고, 숙종 30년(1704) 11월 도기유생(到記儒生)을 시험보일 때 급제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를 받고, 숙종31년(1705) 식년문과(文科)에 병과로 등제(登第)하여, 5월 승정원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숙종 33년(1707) 9월 승문원 저작, 이어서 봉산시 직장, 숙종 34년(1708) 3월 성균관 전적, 4월 사헌부 감찰을 거쳐, 7월에 사간원 정언의 관직을 제수받았다. 숙종 35년(1709) 3월 평북 태천현감(泰川縣監) 거쳐 숙종 37년(1711) 9월 정언으로 다시 내직에 들어와 평양 추고경차관(平壤推考敬差官), 충청좌도 경차관(忠淸左道敬差官)을 겸하였다. 이어서 숙종 39년(1713) 부사과, 숙종 40년(1714) 평안도사, 숙종 44년(1718) 경상도사, 숙종 46년(1720) 3월 사직(司直), 10월 전라도사, 경종 1년(1721) 8월 충청좌도 경시관(京試官) 겸 감찰(監察)을 거쳐 동년 12월 능주목사(綾州牧使)에 올랐다.

일취월장(日就月將) 여러 관직을 거쳐 경종 임진년(1722) 7월에 부수찬, 9월 지제교, 10월 실록 겸 춘추(實錄兼春秋), 12월 서장관(書狀官)의 관직을 제수받았으며, 12월 필선을 제수받고 호군(護軍)을 겸하였다. 이듬해인 숙종 3년(1723) 1월 장악원정에 올랐다가, 진위 겸 진향사(進慰兼進香使) 여성군 이집(礪城君 李楫)과 함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는 8월에 필선(弼善)이 되었고, 이어서 수찬, 집의, 보덕, 교리 등을 제수받았다. 경종 4년(1724) 부사과의 관직을 겸하고 갑진년(1724) 영조가 즉위하자, 신임사화(辛壬士禍, 1721~1722)) 당시에 언관으로 재직하면서, 간언(諫言)으로써 이를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파직 당하고, 성외로 출송 당하였다. 이때 광주이씨 족보 갑진보(廣州李氏族譜甲辰譜)의 중수서(重修序)를 지었다. 영조 3년(1727) 7월에 삼척부사로 나아갔다가, 영조 4년(1728) 5월에는 부호군을 제수받고 내직으로 들어와, 12월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제수 받았다. 영조 6년(1730)에 동부승지와 이어 우부승지로 있으면서, 경종(景宗)의 비(妃)가 승하하자, 선의왕후빈전도감의궤(宣懿王后殯殿都監儀軌)의 진향제문(進香祭文)을 제진(製進)하였다.

이후 영조 7년(1731) 부사과를 거쳐, 영조 9년(1733) 공조참의를 제수 받았다가, 영조 10년(1734) 승정원에 들어 좌부승지와 우승지를 제수받았다. 영조 12년(1736) 부호군의 관직을 제수받고, 고향(경기도 여주)을 오가면서 정양하던 중, 영조 16년(1740) 1월 가선대부로 가자되어 2월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제수 받았으며 10월에는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겸하였다. 영조 17년(1741) 10월에 호조참판을 거쳐, 영조 18년(1742) 8월에는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제수받고, 영조 19년(1743) 8월에는 다시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영조 20년(1744) 9월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가자되면서 기사(耆社)에 들었다.

공(公)은 청백리(淸白吏)에 피선되었으며, 영조 을축년(1745) 서거하니, 향년 85세이다. 王이 公의 부음(訃音)을 듣고 치제문(致祭文)을 내렸다. 묘(墓)는 양서면 부용리(楊西面 芙蓉里) 묘좌(卯坐)에 있었으나,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탄현 선영하(京畿道驪州郡加南面松林里炭峴 先塋下) 인좌(寅坐)에 천묘(遷墓)하여 모셨다. 정부인(貞夫人) 하양허씨(河陽許氏)는 생원(生員) 온(穩)의 따님으로 묘부(墓祔)이며, 장자(長子)는 사연(師淵), 다음은 시연(時淵)이다.

「참판공 휘 승원 묘역: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탄현」

• 치제문 (公逝去時國王致祭文)

아! 오직 충정(忠正)은 경(卿)의 선조(先祖)로다. 우리 목릉(穆陵)을 보좌(補佐)하여, 묘무(廟廡)에 배식(配食)되었도다. 경(卿)이 그 대(代)를 이어, 가업(家業)을 실추(失墜)시키지 않았도다. 단결(端潔)하고 정칙(整飭)하여, 꼿꼿이 자신(自身)을 지켰도다. 사조(詞藻)까지 갖추어 크게 명성(名聲)이 났도다. 마침내 상상(上庠)에서 장원(壯元)하더니, 뒤 이어 문과(文科)에 올랐도다. 번갈아 양성(兩省)의 일을 보면서 옥당(玉堂)의 일도 보았도다. 흔들리지 않고 과격(過激)하지도 않아, 강직(剛直)함으로써 스스로를 인정(認定)하였도다. 영도(榮塗)를 오르내리며, 여러 번 수재(守宰)를 맡았도다. 청렴(淸廉)하고 신중(愼重)하며, 지조(志操)를 가다듬어 호화(豪華)스러움을 피(避)하였도다. 거친 밥과 헤어진 옷으로, 담백(淡泊)하기가 가난한 선비와 같았도다. 곤궁(困窮)함을 굳게 지키고, 고생을 견디어 평소(平素)의 지조(志操)를 변(變)하지 않았도다. 외물(外物)에 마음이 전일(專一)하였도다. 만년(晩年)에 추천(推薦)되어 품계(品階)가 오르고 변방(邊方)을 지켰도다.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가 되어 왕명(王命)을 성실(誠實)히 전(傳)하였도다. 오랫동안 제고(制誥)를 맡았는데, 문사(文思)가 풍부(豊富)하고 민첩(敏捷) 하였도다. 연로(年老)함을 우대(優待)하여 추은(推恩)하니, 공조참판(工曹參判)이 되었도다. 세 군왕(君王)을 섬겼는데, 몸과 명예(名譽)가 모두 완전(完全)하였도다. 나이가 90(九十)이 가까워도 오히려 정력(精力)이 왕성(旺盛)하였도다. 어찌 불행히도 지덕(至德)이 세상(世上)을 떠날 줄 알았으리!

지파도유사글 문경공파

광양군(廣陽君)의 신참신고(新參申告)

새로 신입하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신고식이라는 것을 하는 예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신고식이 지금 뿐 만 아니고, 조선조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그 시대의 신고식은 어땠는가. 한번 보기로 하자.

신래[新來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가 선배 관원들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신고식을 면신례라고 한다.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 벼슬길에 나아가면, 제일먼저 허참례[許參禮 조선시대 처음 관직에 나가는 관원이 선배관원에게 성의를 베풀던 의식, 예비신고식으로 발표된 즉시 행사됨]를 행하고, 10여 일 후에 면신례[免新禮 진짜 신고식]를 거쳐야만 선임자와 동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고려 말, 권문세족의 아들들이 실력도 없이 부모의 권세를 업고, 벼슬을 얻는 일이 많아지자, 선배 관리들이 "버릇없고 철모르는 것들의 기를 꺾어 놓아야 되겠다"면서 시작한 일이, 조선조에 까지 전해진 것이다. 또한 유가[遊街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풍악을 잡히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들을 찾아보던 일]란 신래가 자신의 과거 급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를 자축하는 행사로, 어사화를 머리에 얹고 화려하게 치장한 말을 타고, 나팔과 꽹과리를 동원해 마을을 도는 풍속이다. 이때 당연히 수행하는 종들이, 행인들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질러 길을 열었다. 급제자 뿐 만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자들이 길을 갈 때도 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였다.

광양군(廣陽君 諱 世佐)은 문경공(文景公 諱 克堪)의 長子로 1445년 태어났다. 사가 서거정 문하에서 수업하고, 한원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뇌계 유호인, 용재 성현 등 제현과 도의로써 교유하였으며, 1465년(세조 11) 식년시(式年試) 사마(司馬)에 합격하고, 공신이면서 판서로써 아깝게 서거한, 문경공의 아들이라 천거되어, 장악원 첨정으로 1477년(성종 8) 식년시(式年試)에 갑과(甲科) 아원(亞元)으로 급제하여, 이튿날인 1477년(성종 8) 윤2월 21일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의 제수(登科翌日拜大諫)를 받았다.

조선조 제9대 성종의 실록에 의하면 1477년(성종 8) 3월 16일에,

예조(禮曹)에서 사관[四館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새로 급제(及第)한 대사간(大司諫) 이세좌(李世佐) 등이 유가 할 때에, 주부(主簿) 최융(崔融) 등 몇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신래[新來]라고 벽제[辟除 귀인이 외출할 때 여러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일]하던 사간원의 나장(羅將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은 하급자)들이, 대사간의 행차 앞을 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종자(從者)들의 머리를 휘어잡고, 욕을 보이었습니다. 사문[斯文 유교(儒敎)의 도의(道義)나 또는 문화(文化)]의 신구(新舊) 사이에 예(禮)를 행하는 일이, 비록 예문(禮文)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그 전래한 것은 오래되어서, 세상의 교화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없지 않는데, 지금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선생을 능욕하여 고풍(古風)을 무너뜨렸으니, 청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죄를 추국(推鞫)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였다.

우리나라의 풍속이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한 자는, 비록 당상관(堂上官)에 제수되었다 하더라도, 유가하는 날에 선진자[先進者 어느 한 분야에서, 기능이나 경력, 지위 따위가 남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를 만나면, 반드시 뜻을 굽혀 예(禮)을 행하며, 그의 지시를 따르는데, 이는 대개 사문에 신구(新舊)의 구분을 엄격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광양군은 문과 합격하여, 대사간을 제수받고, 길에서 선진자를 만나도, 벽제를 폐하지 않았고, 혹 범마[犯馬 신분이 낮은 관원이 높은 관원의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행위]를 하면, 추졸(騶卒)을 구타하여, 신진(新進 새로 벼슬에 오름)의 예(禮)를 행하지 않으므로, 사관(四館)에서 분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조선조 유가(遊街) 모습

이 건에 대하여 예조(禮曹)에서 수교(受敎)에 따라, 형조(刑曹)로 옮겨 국문(鞫問)하니, 대신들의 의견 또한 엇갈렸다. 광양군은 우의정 충희공(忠僖公 諱 仁孫)의 손자이고, 공신이며 형조판서를 지낸 문경공의 큰 아들이다. 또한 아버지의 형제 모두가 문과에 합격하고, 봉군에 훈봉되어, 당대 최고 관직에 있으니, 당시 어느 가문도 무시할 수 없는 명문거족이었다. 광양군의 문제를 놓고 심의하던 대신들 중에는, 그의 백부와 숙부들도 있었는데, 숙부(叔父) 광천부원군(廣川府院君 諱 克增)과 광원군(廣原君 諱 克墩)은 모두 말하기를,

"세좌가 비록 신래(新來)이지만, 간관[諫官 왕에 대한 간쟁(諫諍)·봉박을 담당한 관원을 일컫는 말]이므로 벽제(辟除)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내는 자가 잘못이다." 하였다. 이는 간쟁을 통하여 왕권을 견제하는 간관들에게, 그만한 예우를 해주기 위해, 비록 하급직 간관의 행차라도, 마주친 정승이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는 것이 당시의 관례인데, 간관의 수장인 대사간 정도의 행차라면, 벽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신래가 아닌, 대사간이라는 직위를 내세운 것으로, 혈기 넘치는 젊은 신진세력이 날뛰는 상황에, 염증을 느끼던 원로대신들이 많았기에, 이 주장이 먹혀들기 쉬웠다. 그러나 혼자 "이세좌(李世佐)가 진실로 잘못이다."라고 반대하는 대신이 있었다. 광양군의 백부(伯父)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 諱 克培)이었다. 광릉부원군은 신래라는 위치에 무게를 둔 것이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을 밝히며, 조카의 허물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가문의 어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25일이 지난 성종실록 1477년(성종 8) 4월 10일에 형조(刑曹)에서는 아뢰기를,

"대사간(大司諫) 이세좌(李世佐)가 유가(遊街)할 때에 나장(羅將)으로 하여금 선생(先生)의 추종(騶從)을 구타하게 하였으니, 율(律)이 태(笞) 4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교수(敎授)의 관직을 명하였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난 실록의 1477년(성종 8) 4월 18일자 기사에 광양군이 대사간 직책을 계속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음을 보아, 광양군의 좌천은 아마 1~2일내에 원 위치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광양군은 성균관 대사성 등을 거쳐 이듬해에는 충청도 관찰사로 나아갔다.

광주이씨는 조선의 창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둔촌 5형제, 둔촌(諱 集)의 아들 3형제, 손자 청백리공(諱 之直)의 아들 3형제와, 손자 8형제 중 7형제 등, 조선초 아들 형제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더하여 청백리공의 2자 충희공의 아들 5형제가 모두 급제함은 물론, 봉군(封君)에 정해지고, 조선조 창업을 수성하는 시기를 지나, 정치·문화·사회적으로 꽃을 피우던 성종 연대에, 8극 조정이라는 화려한 가문으로 태어났다. 그러하기에 가문의 번창함을 경계하여, 광릉부원군은 손자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겸(謙)과 공(恭)을 넣어 이름을 지을 정도로, 시기와 음모로부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스스로 공겸을 행하여야 했으나, 시대는 변한다고 했던가? 30여년이 지나 연산조에 이르러, 광이가문(廣李家門)은 멸문지화를 당했으니, 역사속에서 후손들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경계하며, 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문경공파 도유사 준희 書–

지파 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 종회

■ 임원회의 및 화수회 개최

광릉부원군파 종회(도유사 종선)에서는 지난 7월20일(금) 오후3시 종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광릉부원군 파조님 불천위제 봉행 일자와 시간 변경에 대해 논의하였다.

광릉부원군께서는 1422년에 출생하셔서 1495년(음력)6월22일 卒하셨으며, 지난해까지 불천위제를 매년 음력 6월21일 오후 7시30분에 봉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음력 6월22일 오전11시30분에 모시기로 의결하고 임원회의를 마쳤다,

이어서 광릉부원군파 종회 화수회(회장 종길) 7월 월례회의가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종봉 총무의 진행으로 국민의례에 이어 종길 화수회장 , 종선도유사 인사가 있었다. 종길 회장은 인사에서 불볕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각별히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아울러 8월3일 광릉부원군 파조님 불천위제 많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어서 종선도유사께서 인사와 함께 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다음은 석재 대종회 문화유사로 부터 대종회 소식을 듣는 시간을 가진 다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이날 회의를 모두 마쳤으며. 이후 황금오리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회원 간 돈 목의 시간을 가졌다.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 記–

광천부원군파 종회

■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4만5천 평의 선산에 광천부원군(휘 극字증)이하 7분의 선조님 유택의 묘역에는 수령을 짐작키 어려운 아름다운 소나무 수십 그루와, 1993년 12정보에 활엽잡목들을 벌목하고 잣나무와 낙엽송으로 조림사업을 하여 7년여 동안 정성을 다하여 산이 울창하게 조림 되었으나 2000년 3월24일 예기치 않은 산불로 12정보 중 10여정보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으로 재사와 신도비 주변은 화마로부터 변을 면할 수 있었다. 그해 4월 소실된 임야에 다시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수십 년 된 조경용 소나무 수십그루와 잣나무 묘목, 그리고 자작나무를 묘역 주변에 조경 배치하여 20년생 이상의 나무들이 산의 기품을 더해주는 묘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광주 · 이천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솔수염하늘소)과 잣나무 재선충(북방하늘소)이 전파되어 많은 나무가 감염, 고사되기 시작하여 우리 종회는 2015년 2월에는 소나무 직접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데만 650만원의 경비가 소요 되었다. 이후 2016년부터 매년 3월에는 소나무 수간주사와 5월부터 8월까지 월2회에 걸쳐 45,000평의 임야에 지상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5월~8월(4개월)간 소나무 재선충 지상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병풍처럼 둘러쳐진 침엽수의 보전을 위하여 우리 종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변 산림에는 재선충 감염으로 소나무 잣나무 주변의 나무는 모조리 벌목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종회는 광주시의 도움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등 그 효과로 피해를 모면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오늘도 예의 주시하여 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무유사 종두 記–

광원군파 종회

■ 화수회 7월 월례회의 개최

광원군파종회 화수회(회장 광래)에서는 7월27일(금요일)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화수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점식 총무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에 이어 광래 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희망 하신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병대 도유사 및 옥재 대종회도유사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신입 회원으로 부사공종회 은재종회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종회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화합을 위해 노력할 생각임을 밝힌 후 “무더운 날씨에 회원님 들이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하여 회원 모두로부터 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경재 전도유사께서 보학교육으로 ‘무오사화의 진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강의를 해 주었다. 광원군 후손이라면 무오사화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며 광이회보 5호에 기재 되어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었다.

끝으로 7월28일 광원군 파조님과 감사공 묘소의 중간벌초 작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전하고 회원들의 많은 참석이 있기를 당부하였으며, 8월 월례회의는 쉬는 것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한 후, 이날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삼계탕을 식사로하여 반주를 곁들이며 회원 간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광원군, 감사공 묘소 중간벌초작업 시행

광원군파종회 광일회 화수회(회장 완노)에서는 7월28일(토요일)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광원군 묘역에서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묘소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일찍 도착한 감사공 도유사, 광일회 총무(용춘), 광원군파 화수회 총무(점식), 문화유사 용인 등 종인들은 광원군 선조 묘소에 도착하여, 폭염에도 불구하고 합심하여 오전 내에 벌초작업을 모두 마쳤다.

작업이 끝난 후 회원들은 완노 회장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물을 차려놓고, 참배를 드린 다음 간단히 음복을 한 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식사 전 석래 감사공도유사, 용춘 광일회 총무는 아침 새벽부터 오셔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하고 특히 이날 수고가 많이 해주신 종인들께 감사함을 전한 후 추어탕으로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돈목의 시간을 보냈다.

–광원군파종회 총무유사 갑수 記–

■ "도화회" 2018년도 3차 모임 가져

도정공종회 화수회(회장 양재)는 지난 7월15일(일요일) 오전11시 서울 성동구 도정공종회 회관에서 양재 회장 등 회원 20여 분과 초청 인사들을 모시고 도화회 2018년도 제3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택재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참석 내·외빈 소개, 회장인사, 경과보고, 환영연주, 보학강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장인사에서 양재 회장은 도화회 모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연중행사로 도정공을 비롯한 입향 선조님을 중심으로 매년 1회의 성묘순례와 보학에 고명하신 분을 초청하여 년3회 보학강의를 하고 있으며, 강의내용은 녹화하여 도화회 카페에 올려 종인들의 보학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초청 인사로 참석해 주신 대종회 재진 전도유사께서는 10개 지파 이하 소종회에서 이런 문화 행사를 하는데 감명을 받았다고 축하와 격려의 말씀과 이천 설봉서원 원장이 이천의 문헌에 태조 왕건이 하사한 지명이 廣州라고 소개하며 본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다음은 경과보고에서 지난4월 첨지사공 묘소 성묘순례 행사와 승지공 광운선조님의 세적비 제막식 및 고유제 행사에 대한 요약 설명과 문경공파종회 주병총무의 보학 강의를 환영하는 광원군파 갑수총무의 축하 연주가 있었다. 이어서 문경공파 주병 총무로부터 탄수선생(휘 연경)에 대한 행적과 훌륭하신 학문적 업적에 대한 강의가 종인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50여분동안 이어져 졌으며, 이날 강의내용은 도화회 카페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다.

강의가 끝난 다음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고. 인근 찜요리 집으로 자리를 옮겨 즐거운 회식 시간을 가졌다.

–도정공종회 총무 택재 記–

시조비 인화이씨 묘(始祖妣 仁華李氏 墓)

인화이씨(仁華李氏)는 우리 광주이씨 고려조 생원(生員) 당공(唐公)의 배위 즉 중시조(中始祖) 고려조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둔촌선생(遁村先生)의 어머님이시다.

선생이 신돈(辛旽)의 화(禍)을 피해 몰래 아버지 생원공을 업고, 영남을 넘어 영천군(永川郡) 지우(知友) 최사간 원도선생(崔司諫 元道先生)의 집에 피신하였다가, 1369년(공민왕 己酉)에 생원공이 서거하니, 최선생이 백세의 은덕(恩德)을 베풀어 자신의 모친 묘 아래에 장사지내게 하였다. 신돈이 주살을 당하고 나서 개성 고향 집으로 환경(還京)하였는데, 이때 최선생이 둔촌선조에게 지어 준 시(詩) 중에 한산소변운연조(漢山沼邊雲煙阻)"라고 한 것은 어머님이신 인화이씨 부인의 장지(葬地)가 한산에 있다는 뜻이다. 둔촌선조께서 화(禍)를 벗어나 귀(貴)하게 된 뒤에 편안한 곳을 찾아 옮겨 합장하지 못하였다.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오래되어 가정적으로 갑자화(甲子禍)를 치르고, 국가적으로는 임진란(壬辰亂)을 겪으면서 점점 변하는 간사한 사람들은 비석(碑石)을 부수어 없애니 묘지에 통하는 길을 찾기에 정신이 헷갈리고 어지럽고 어수선하게 하였다. 까닭에 경술보(庚戌譜 1610)에 부인의 묘는 광주(廣州)에 있으나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仁華李氏 墓在廣州不知其處)

그 후 2백여 년 동안 깊숙한 눈으로 눈에 익혀두었고 또 둔촌시고(遁村詩稿)에 섣달 그믐날 어머님 묘소에 성묘(省墓)하고 거천(渠川) 이낙헌(李樂軒)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묘소가 거천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똑똑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나,

광주 구천면(현재 강동구 명일동 근방)에 거주하는 14대손 창하(昌夏 광릉부원군 10대손) 진사 용한(進士 龍翰 숭덕재 8대손)등이 논과 밭 사이에 있는 도랑과 개천을 돌아다니면서, 돌을 뒤져보고, 고로(古老 오래 거주해온 노인)에게 물어서, 그곳을 찾아 비로소 광주 고읍 거천동 황산록(廣州 古邑 渠川東 荒山麓 하남시 덕풍동)에서 "인화이(仁華李)" 세자가 새겨져 있는, 한 조각의 구갈(舊碣 비석의 파편)을 습득하였다. 여기가 거천 수리동(渠川 愁里洞 수리골)인데 위에 커다란 한 무덤이 있고, 아래 좌측에 문숙 지강(文肅 之剛 둘째손자)의 묘가 있고 우측에 목사지유(牧使 之柔 셋째손자)의 묘가 있는데, 이 두 묘의 비석 등의 글자가 다 명확하고 한 국내(局內)에 수십 보 사이에 세 봉분이 함께 상대(마주보고)하여 있으므로, 이것은 광주이씨(廣州李氏)의 선조의 묘라고 믿고 원근종인에게 통지하여, 형조좌랑 수희(秋官郎 壽熙 관찰사공 10대손)가 달려와 묘형을 살피어보고,

인화이씨 묘소(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24-1)

진사 이억(進士 以檍 광원군 8대손)
승지 광운(承旨 光運 광원군 8대손)
진사 세행(進士 世珩 관찰사공 10대손)
참판 승원(參判 承源 숭덕재 6대손)
판서 하원(行判書 夏源 동고 6대손)
진사 광조(進士 光朝 한음 5대손)
부사 성지(府使 聖至 탄수 7대손)
통덕랑 선만(通德郎 善晩 양호당공 현손)
동중추 득원(同中樞 得源 동고 6대손)
승지 명희(承旨 命熙 동고 7대손)
현감 명응(縣監 命鷹 동고 7대손)
현령 명흥(縣令 命興 동고 7대손)
병사 명준(兵使 命峻 동고 7대손)
정언 광윤(正言 光允 동고 8대손)

승지 기덕(承旨 基德 동고 9대손) 등과 상의하여 개축하기로 결정하고,

1743년 (영조 계해) 청명일에 창하(昌夏)등이 수많은 종원들을 인솔하고, 드디어 장례(葬禮)를 다시 거행하였다.

그 후 10여년이 흘러 제 후손(諸 後孫)들이 모금하여 세사전(歲祀前)에 다시 비석을 세워 묘소를 표시하고 무덤의 길을 개신(改新)하니, 익찬 수이(翊贊 壽瀷 좌통례공 9대손)가 주기사(主其事 사업을 주관)하고 정언 기덕(正言 基德 문경공 12대손)이 기지(記識 삼가 기록하다)하고 효자 승지 광운(承旨 光運 광원군 8대손)이 서(書 글씨를 쓰다)하니 때는 1754년(영조 30년)이다.

〈사적심사위원 주병 書〉

종인 기고문[1]

충희공(휘 인손)묘소 천장과 영릉 이야기

충희공(1395년-1463년)께서는 1463년(蔭)7월13일 69세의 일기로 卒하시었다.

그런데 충희공 묘소 천장과 관련된, 여러 구전설화(口傳說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구전설화에 의하면 지관이 충희공 묘지를 잡아 주면서 자손에게 당부하기를, "가문이 아무리 번창하여도 제실을 짓지 말고, 묘지를 가는데 불편함이 따른다 해도 다리를 절대로 놓지 말라"고 당부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5군께서 고관대작(高官大爵)하시면서 가문이 번창 해지자, 자손들은 모두 선조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제실도 없이 묘지를 놔두는 것도 자손 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 대대적으로 묘지를 정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묘지를 가기 위해서는 개울을 건너야 했는데, 불편함이 없게 튼튼한 돌다리로 놓았고, 묘지 아래로는 재실(齋室)도 크게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세종대왕께서 승하 하였을 당시 묘소는 헌인릉(헌릉 · 인릉) 근처 세종대왕의 비(妣)인 소헌왕후가 영면하고 있던 묘에 합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후(死後) 왕실에서는 흉사가 끈이질 않았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문종대왕이 즉위한지 2년 만에 죽고, 단종이 즉위하였으나 숙부(叔父)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 당한 뒤 비명에 죽었으며, 세조는 재위 14년 동안 피부병으로 시달림을 받았고,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는 자다가 갑작스럽게 가위눌림 현상으로 세상을 등졌으며,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예종에 올랐으나 재위 13개월 만에 승하하였고, 그의 아들 또한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다. 세종대왕 사후(死後) 19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세자와 원자가 죽는 등 왕실은 흉사가 끈이질 않았다. 당시 조정(朝庭)에서는 이 모든 흉사가 세종대왕의 영릉이 묘 자리로 부적합(흉지) 하다고 생각을 하여 영릉을 천장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에서 뛰어난 상지관을 뽑아서 명당자리를 찾도록 독려 하였다. 이후 지관들은 한양 인근의 땅을 모조리 찾아다녔으나 마땅한 명당자리를 찾지 못하였다. 이 무렵 상지관인 안효래는 여주로 향하였다. 왕릉은 원칙으로 도성에서 100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유인 즉 임금이 당일 성묘에 다녀와야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효례는 여주는 한양에서 100리는 넘지만 남한강 뱃길을 이용하면 하루 만에 다녀 올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상지관 안효례는 여주에 도착하여 근교서 제일 높은 북성산에 올라 주변을 살필 무렵,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속이라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없었다. 그런데 저 멀리 재실이 보이질 않는가? 재실로 달려 가 비를 피하려 하니 폭우로 개울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었다. 하는 수없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튼튼한 돌다리가 보였다. 그는 돌다리를 건너 재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묘지 쪽에서 밝은 서기가 비추는 것이었다. 상지관 안효례는 하도 신통하여 묘지 쪽으로 올라가 보니 천하의 대 명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 명당이 충희공(휘 인손) 묘소였다는 것이, 구전설화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편 구전(口傳)에 의하면 충희공 선조님 묘소를 천장하여 모실 때 이러한 내용의 비기(祕記) 나왔다고 한다. 단지대왕 영폄지지(短之大王永窆之地 : 세종대왕이 한족 다리가 짧음으로 세종의 묘 자리를 지칭하는 말)라는 비기(祕記)와 당장동방성인(當葬東方聖人:당연히 동방의 성인이 묻힐 자리라는 뜻) 이라는 비기(祕記)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천장을 모실 때에는 반듯이 연을 띄워 연이 떨어진 곳에 묘소를 천장하라는 비기(祕記)도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연을 띄워 연이 떨어져 천장을 모신 동네 이름이 연주리(現 신지리)라고 부른다는 것이 설화이며, 모두 이 정도로 충희공 선조님 묘소 천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구전은 흥미위주의 설화이기 때문에 구전으로 받아들인 다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필자는 왜곡됨이 없이 가급적 실록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 볼까한다. 예종 즉위년 조정에서는 영릉을 천장하기 위해서 천릉도감을 설치하였는데, 하동군 정인지, 능성군 구치관, 호조판서 노사신, 한성부윤 서거정 등에게 산릉의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이 후 영릉이 이계전(韓山人)의 묘소로 결정된 뒤 정인지등이 1468년 12월 28일 사목(事目)을 지어서 임금께 아뢴 내용이다.

1) 이계전의 분묘는 모름지기 즉시 파내어서 수기(水氣)가 있는지 없는지 보소서.

2) 석실(石室)과 잡상(雜像)은 옛날 것을 쓰소서.

3) 영악청(靈幄廳)은 정자각(丁字閣)을 쓰소서.

하니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 수기(水氣 : 축축한 물기) * 석실(石室: 석재를 쌓아서 만든 무덤 매장시설)

* 잡상(雜象 : 기와지붕 추녀 마루위에 놓이는 장식기와)

* 영악청(靈幄廳 丁字閣 : 혼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건물)

이인손(충희공)의 분묘는 이계전의 분묘 옆에 있었는데, 천장 할 때를 당하여 임금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치서하여 그 아들 평안도 관찰사 이극배(광릉부원군)를 부르고 행호군 송문림으로 그를 대신 하였다.

1469년 1월1일, 권감(당시 도승지)에게 명하여, 일찍이 정승을 지낸 사람들에게 전지하기를---

부모를 천장하는 것은 인정에 있어 매우 애절한 일이니 평안도 관찰사 이극배를 체대(遞代 :임기가 만료되어 교대〈交代〉함)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고령군 신숙주등이 아뢰기를---

지금 명나라 사신이 다가왔고 이인손(충희공)의 무덤은 원릉의 청룡(靑龍: 주산에서 갈려나간 왼쪽산맥)북쪽에 있으니, 마땅히 명나라 사신이 서울에 당도하기를 기다려서 체임하고 천장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이극배(광릉부원군)에게 치서하기를, 경(卿)의 부모 무덤을 천장(遷葬)하게 되었음으로, 저번에 경(卿)에게 유시하여 속히 돌아오게 하였으나 명나라 사신이 또한 이를 것이니 경(卿)은 그곳에 우선 머무르며, 여러 가지 일들을 조처하고 판비(辦備)하며 사신에 대한 제반사를 지대(支待)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편 예종즉위 1468년 12월 27일 예종실록에 의하면 이인손(충희공)의 묘는 이계전의 묘 옆에 있었는데, 영릉의 터로 이계전의 분묘로 정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예종실록)에서 보듯 세종대왕의 영릉은 이계전(한산인 1404-1459 대제학, 한산부원군)의 묘를 파묘하여 세종대왕을 천장하였으므로, 충희공 묘소에 천장하였다는 설화는 실록(實錄)과 다소 괴리(乖離)된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록에 의하면 충희공 묘소는 주산(主山)에서 갈려나간 북쪽의 왼쪽 산맥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 왕릉이 조성되면 반경 10리 내의 묘소는 모두 천장하는 것이 법도(法度)였다. 한편 영릉 천장과 관련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예종신록)에 기" 내용이 기록 되어있으며, 필자 또한 영릉과 관련된 설화에 대해서 이계전의 후손들이 매체를 통해서 반박하는 글을 여러 번 읽어 보았다. 내용인 즉 모두 실록에 근거하여 잘 정리 되어 있었으며, 또한 우리 충희공 종회에서도 거론 한바 없음으로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구전설화에 의해서 미화된 부분은 기"실록을 통해서 참고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 書-

바르게 고칩니다.

〈제337호〉

- 3면 하단 우측 하 7행 : 임향선조님→입향선조님
  하 3행 : 준재 → 중재
- 4면 상단 중앙 상17행 : 용환 → 성환
- 9면 좌측 하23행 : 숙질(叔拏) → 숙질(叔姪)
- 11면 "이달의 명심보감"
  좌측 상 1행 : 範忠宣公 → 范忠宣公
  " 하 3행 : 당이책인지 책기 당이책인지 책기
  → 당이책인지心책기 당이책 인지심책기

종인 기고문[2]

구계서원을 돌아보고 ①

1. 개요

조선 후기의 학자 이긍익 (李肯翊 1736~1806)이 지은 연려실기술 (練藜室記述) 별집(別集) 제4권에「우리나라는 옛날에 서원(書院)이 없었으나, 가정(嘉靖 가정은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1522~1566) 연간(1542) 주세붕(周世鵬)이 풍기 군수(豐基郡守)가 되었을 때에, 풍기군의 속현인 순흥(順興)은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본관(本貫)이며, 살았던 옛터이므로, 거기에다 그의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선비들이 장수(藏修)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곧 백운동(白雲洞)이다. 이황(李滉)이 주세붕을 이어 군수가 되어, 조정에 건의하여, 송(宋)나라의 고사에 따라 사액(賜額)할 것과, 책을 내려줄 것, 토지와 노비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더니, 명종 5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사액하고, 또 신광한(申光漢)에게 명하여 기문(記文)을 짓게 하였다. 서원에 사액하는 것과 책을 내린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조 때 편찬된 조두록(俎豆錄)과 고종 때 증보(增補)된 문헌비고(文獻備考) 및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등에 기재된 서원의 명단을 토대로, 서원등록(書院登錄)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연대 기류에 나타난 훼철서원(毁撤書院)을 볼 때, 조선조 서원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전 시기에 걸쳐 8도에 417개소가 있었으며, 사우(祠宇)는 49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 특히 숙종조 당시, 서원이 남설(濫設)되면서부터, 서원(書院)·사우(祠宇)의 구별이 모호해졌으므로, 사우까지도 서원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하여 모두 909개소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로서 일반적으로 사액서원뿐만 아니라, 서재·사우(書齋·祠宇)까지도 혼칭되고, 성격도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는 서원내에 모현사(慕賢祠 안동 구계서원내 묘호), 구암사(龜巖祠 사천 구계서원내 묘호) 구계사(龜溪祠 청안 구계서원내 묘호) 등과 같이 묘호(廟號)가 함께 존재하고, 또한 충렬사(忠烈祠), 의열사(義烈祠), 민충사(愍忠祠), 구산사(龜山祠) 등과 같이 묘호(祠宇)만 존재하였음에도, 서원이라고 불렀음을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서원은 이어 교화의 방향을 상실한 사림층의 대민착취와, 서원의 부패로 인한 민폐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1868년에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에 대하여, 1인 1원(一人一院) 이외의 모든 첩설서원(疊設書院)을 일시에 훼철하여, 서원명칭을 가진 것이 27개 소, 사(祠)가 20개소로서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겨놓게 된 것이다.

2. 구계서원의 편액(扁額)

가. 구계서원

문헌 등에 의하면 구계서원(龜溪書院)이라는 명칭을 가진 서원은, 전국에 3개소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① 명종조 학자이며 영의정을 지낸 동고 이준경(東皐 李浚慶)선생을 비롯하여, 5인을 배향한 충북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

② 명종조 문신이자 학자인 구암 이정(龜巖 李楨)선생을 배향한, 경남 사천(泗川)의 구계서원(龜溪書院)

③ 고려조(高麗朝) 좨주(祭酒) 우탁(禹倬)선생을 배향한, 경북 안동(安東)의 구계서원[龜溪書院 전신은 도동서원(道東書院)]이 그것이다.

나. 청안의 구계서원

① 연려실기술에 의하면「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은 광해군 5년(1613)에 세웠다. 이준경(李浚慶) 명종조의 정승, 서사원(徐思遠) 호는 낙재(落齋)이며 현감을 지냈다. 박지화(朴枝華) 자는 군실(君實)이며, 호는 수암(守庵)으로 본관은 정선(旌善)이다. 교관(敎官)을 지냈고, 예서(禮書)에 정통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물에 빠져 자결하였다. 이득철(윤)[(李得澈(胤) 호는 신곡(莘谷)이다. 이당(李瑭) 호는 방촌(芳村)이며 참봉을 지냈고 추배되었다」고 하였다.

② 여지도서(輿地圖書), 청안현읍지(淸安縣邑誌),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등 문헌에,「구암서원은 조선 광해군 5년(1613) 청안현(淸安縣)의 남쪽 10리에, 조은 신경행[釣隱 辛景行 청난공신 영성군(淸難功臣 靈城君), 충청도병사(忠淸道兵使), 시호충익(諡忠翼)]의 주도로 건립되었다」고 하였다.

③ 청안군 읍지(淸安郡 邑誌)에「구암서원(龜巖書院)은 현의 남쪽 10리에 있으며, 동고 이준경 등을 배향하였고, 사액은 받지 못했으며, 기사년 훼철되었다」하였고, 현종 14년(1673) 백곡 김득신(栢谷 金得臣)이 지은 낙재 서사원(樂齋 徐思遠)선생의 위판을 봉안하는 봉안위판어청안구암서원(奉安位版於淸安龜巖書院)에서도, 구암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④ 동고유고(東皐遺稿) 및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의 동고상공(東皐相公) 해제(解題)에서, 동고 이준경이 청안 구계서원에 배향되었음을 기록하였고,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는 서사원, 박지화, 이득윤에 대한 해제(解題)에서, 청안 구계서원에 배향하였으며, 수암 박지화(守庵 朴枝華) 선생의 연보에도, 구계서원에 배향되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호보(號譜 호를 중심으로 편찬한 족보)는 방촌 이당(芳村 李瑭)에 대한 해제(解題)에서 청안 구계서원에 배향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⑤ 구계서원이 있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수현마을 사람들은, 전해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구석산에 거북바위 천만년 연연한데, 글소리 나던 구계서원(龜溪書院) 주춧돌만 남아 있네」라고 "마을 유래비"에 자랑스럽게 새겼다.

⑥ 광여도(廣輿圖 19세기에 만들어진 전국 군현 지도집)에는 명칭없이 청안현에 서원이 있었음을 표시하였고, 해동지도(海東地圖) 등 여타지도에도, 서원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구계서원(龜溪書院)은, 옛 문헌에 구암서원(龜巖書院)이라고 명칭한 경우와, 구계서원(龜溪書院)으로 기록한 문헌도 있어, 어느 편액이 진짜 편액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불리어온 바와, 서원내 동고상공의 묘호(祠宇)를 구계사(龜溪祠)라고 하였던 점, 그리고 구계서원의 주변 지명(龜石山, 左龜山 등)을 감안해 볼 때, 편액은 구암(龜巖)으로 하였으나, 구계(龜溪)와 구암(龜巖)을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구계(龜溪)로 정착화 되지 않았을까 한다.

3. 설립과 훼철(設立과 毁撤)

구계서원(龜溪書院)은 일명 동고서원(東皐書院)으로도 불리었는데, 광해군 5년(1613)에 청안현감 조인행(趙仁行)과 충청도병사 신경행[辛景行 영성군(靈城君) 시호 충익(忠翼)]등이, 인근의 유림들에게 통문을 보내, 청안현감(淸安縣監)을 지낸 서사원(徐思遠), 괴산현감을 지낸 이득윤(李得胤), 수암 박지화(守庵 朴枝華) 3선생의 위패를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여 배향하였다. 그 후 현종 7년(1666)에 송시열의 문인(門人) 황처검(黃處儉)등이, 사림들에게 통문(通文)을 보내, 다시 영의정 이준경(李浚慶)과, 헌릉참봉을 지낸 이당(李瑭)을 추가로 배향했다.

이때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에게, 위차조정(位次調整)을 의뢰하여 위치를 정하였는데, 이준경을 주향(主享)으로 하고, 서사원·박지화·이득윤·이당을 차례로 배향했으며. 서원내 묘호[廟號 사우(祠宇)]를 구계사(龜溪祠)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청소년문학상 우수작품 소개[1]

초등부 최우수작

"둔촌 선생님과의 묘한 인연"

〈매화초등학교 6학년 김 호 연〉

문학을 공부한 아빠를 둔 딸은 항상 피곤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문학에 대해 말씀하시고, 역사에 대해 열심히 강의하신다. 나는 그런 아빠를 좋아해야 하는지 귀찮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2017년 10월 8일 아빠는 여주 세종대왕릉에 가자고 하셨다. 이번에도 알려주시기 위해 가는 것인 줄 알았건만 아빠는 가르쳐 주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기념하여 이곳에서 세종백일장이 열린다. 이 백일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하셨다.

이곳으로 오니 여주 시내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 있다. 이들도 세종백일장에 참석하려고 온 것이 분명했다. 주제 중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쓰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는 아빠가 갑작스럽게 데리고 와서 뭐를 써야할지 막막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차근차근 썼다.

다 쓰고 난 뒤에 우리 가족은 세종대왕릉을 향해 올라갔다. 정성껏 능 앞에서 참배하였다. 참배를 마치고 우리는 해설사분에게 세종대왕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래 이 릉은 세종대왕의 묘소가 아니었다. 사실 세종대왕은 아버지 태종이 묻힌 헌릉 서쪽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에 왕실에서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다. 19년 만에 4명의 왕이 바뀌었다.

8대 예종이 즉위하자 신하들은 세종대왕의 묘소가 안 좋아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예종은 세종대왕을 안전하게 모실 명당을 찾으라고 명하였다. 신하들이 찾고 찾은 가장 좋은 명당이 바로 충의공 이인손의 묘였다. 이인손의 묘소는 왕에게 양보해야만 했다. 대부분의 조선왕들의 묘소는 다 서울 근방 100리 안에 있다. 세종대왕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일 때문에 영릉은 아주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다.

이인손의 후손들은 묘소를 옮겨야 했다. 묘를 파자 유골 밑에는 "이 자리에서 연을 날려 하늘 높이 떠오르거든 연줄을 끊고 연이 떨어진 자리에다 이장해라."라는 글이 써진 비기가 나와 그대로 실행하자 연은 약 십리쯤 날아가다 떨어져 그 곳에 묘를 옮겼다고 한다. 이런 전설로 인해 이인손의 묘소가 있는 곳의 이름을 연지리라고 한다.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아빠는 차를 몰아 연지리로 갔다. 지금은 신지리라고 불린다. 거리 안내판이 있어서 묘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묘소는 영릉보다 작고 초라했다.

그러나 왕에게 묘소를 양보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후손이 잘되는 복이 있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었고 앞에는 드넓은 들이 있었다. 묘를 보호해 주는 듯 세워져 있는 4개 정도의 비석은 정말 신비스럽다. 2개는 장승 같았다.

이 장승이 묘를 보호하는 듯하였고 평평한 비석이 세로로 깔은 것도 있었다. 맨 앞에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올려놓는 돌이 있었다. 아빠는 이것을 제단이라고 부른다 하셨다.

집에 돌아와 한참 책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 이인손과 관련된 자료를 찾던 아빠는 이인손 집안이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빠는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둔촌 이집 선생님이다. 고려 마을에 충성과 효도를 실천하셔서 존경을 받는 분이다. 선생님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그러나 공민왕 때에 신돈이라는 중이 정치를 제멋대로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신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이집 선생님은 신돈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자 영천으로 도피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신돈이 죽자 선생님은 다시 벼슬길에 나아갔다. 이때 숨어 지내던 곳이 둔촌이라고 한다. 서울에 둔촌동이 여기에 이름을 딴 것이다.

선생님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자 또다시 숨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고려의 신하이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충성을 지킨 것이다.

선생님은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하고 충성을 지켰지만 손자 때부터 큰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인손이라는 분의 손 자가 손자 손 자이다.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이다. 이분의 형인 이장손, 동생 이예손도 유명한 분이라 한다. 이분들의 아들에 이르러 더욱 유명한 후손이 나타났다. 이름 가운데 극 자로 유명한 분이 8명이라 한다.

아빠의 강의를 들으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선생님의 자가 호연이다. 나의 이름과 같은 호연이다. 묘한 인연이다.

묘한 인연이니깐 나도 둔촌 선생님처럼 유명한 인물이 되고 싶다. 국가에는 충성을 다하고 부모님께는 효도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학용어 해설 [13]

■ 조선시대 관직제도 (IX)

20. 친공신(親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

공신(功臣)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훈호(勳號)로서,

이는 각각 등급이 있는데,

• 친공신(親功臣)이란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으로 승습(承襲)된 공신이 아니라 자기의 공으로 녹훈(錄勳)된 공신이며,

• 원종공신(原從功臣)이란 공신의 주장(主將)이 되는 친공신(親功臣) 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공신의 칭호로서 이는 공신의 자제, 사위, 또는 그의 수종자(隨從者)에 대한 포상(褒賞)인데,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으로 책록(策錄)되었기 때문에 이를 승습공신(承襲功臣)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하던 것을 명(明)나라 태조의 휘(諱)자인「元」자를 피하여「원종(原從)」으로 고친 것이며, 친공신에게는 교서(敎書)를 내리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錄券)만을 주었다.

21. 가자(加資)와 승자(陞資)

• 가자(加資)란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상의 품계를 말하는 것인데, 승진(昇進)의 경우도 가자라고 하며,

• 승자(陞資)란 정3품 이상의 품계에 승진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서 승자를 가자라고도 흔히 쓴다.

그런데 승진의 경우 가자하여야 할 사람이 더 가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아들 · 사위 · 아우 · 조카 중에서 대신 가자하는데, 이를 대가(代加)라고 한다.

"축하합니다 !!"

주영의원 국회부의장 선출

〈취임인사를 하는 주영 국회부의장〉

지난 7월13일 본문(문경공파) 24대손 주영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주영 의원은 1951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하여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대학원 석사와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78년 사법고시에 합격(20회)한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남 창원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하여 20대까지 5선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2달 전인 2월에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어 활동해 오다가 원내로 다시 돌아와 20대 총선에 당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활동해 오다 이번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것이다.

주영 국회부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의의 전당으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주영 현종은 廣州李氏 "廣文會" 를 이끌어오다 지난 6월 모임을 통해 종구(광원군파22代孫) 의원에게 회장직을 넘겨준바 있다.

둔촌선생 명시선 46

奇寧州琴李兩生
기 영 주 금 이 양 생

昔守天安日高風見兩生讀書知力學營業事
석 수 천 안 일 고 풍 견 양 생 독 서 지 력 학 영 업 사

躬耕嗟我頭將白聞君道益明何時再會面南
궁 경 차 아 두 장 백 문 군 도 익 명 하 시 재 회 면 남

北未休兵
북 미 휴 병

영주의 금·이 두 서생에게 부치다

지난날 천안(天安)을 말았을 시절에
풍표(風標: 풍채) 높은 두 서생 만난 일 있지.
공부할 땐 역학(力學: 힘써서 배움)할 줄 알았고
세간살이는 궁경(躬耕: 몸소 밭을 갈음)을 일삼았지.
내 머리털 세려는 건 슬픈 일이나
그대들 학문을 성취했다니 반갑구려.
언제나 다시 한 번 만나게 될 건가
남북으로 병란은 끝나지 않았으니.

이달의 明心寶鑑

寇萊公六悔銘云	구래공육회명운
官行私曲失時悔	관행사곡실시회
富不儉用貧時悔	부불검용빈시회
藝不少學過時悔	예불소학과시회
見事不學用時悔	견사부학용시회
醉後狂言醒時悔	취후광언성시회
安不將息病時悔	안불장식병시회

[해설]

구래공(寇萊公)이 육회명(六悔銘)에 이르기를
관리가 부정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후회하고,
부자가 검약해서 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고,
재주를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때가 지났을 때 후회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아니하면 때가 지났을 때 후회하고,
술취한 뒤에 마구 말하면 술 깨었을 때 후회하고,
건강할 때 섭생하지 않으면 병들었을 때 후회한다.

–존심편(存心篇) 中에서–

좌의정공파 파보(派譜) 편찬(編纂)안내

존경하는 좌의정공파 종인여러분!

우리 종회에서는 1959년 기해보(己亥譜)와 1981년 신유보(辛酉譜)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족보는 통상 30~50년 주기로 발간하여 그 집안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通常的)인 주기로, 우리 종회도 신유보(辛酉譜) 이후 37년이 경과되어 제작 할 시기가 도래(到來)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대종회(大宗會)가 대동보(大同譜) 편찬을 시작하므로 당 종회도 파보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대 시류에 맞추고 새로운 이미지의 파보와 전자족보를 병행 제작하여 노소(老少)가 함께 보고 읽기 쉽게 한글 병용하여 어디서고 활용토록 편찬할 계획입니다.

누락되어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되거나 조상을 잃어버리고 향후 종회의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면 가까운 친척이나 일가 분들과 상의하시어 정한 시일 내에 수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아래 각 계열별 위원 또는 지역 소종회에 문의하면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를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6. 2.

좌의정공파 파보편찬 위원회

위원장 : 근열
수석 부위원장 : 명환
부위원장 : 충교, 승진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71 광릉빌딩 402호
전화02)2213-5316
Fax 02)2216-1530

계열별(집안)	담당위원	연락처(電話)
휘 여규(如圭)집안	근 수	010-5227-2055
휘 여벽(如壁)집안	근 춘	016- 352-8691
휘 여황(如璜)집안	희 순	010-8953-2293
휘 여박,방,선(如璞,榜,琁)집안	기 순	010-3745-7501
휘 구형,여민(久馨,如珉)집안	완 교	010-2004-1882
휘 흥경(興慶)집안	근 찬	010-3301-0026
휘 세건(世建)집안	원 재	010-3794-1352
휘 태경(泰慶)집안	종 철	02) 777-9088
안내 문의	시 하	010-5335-4912
e-mail : kclee2972@hanmail.net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6월 구독 및 찬조			이동재	20,000	전라남도 보성군	이헌래	30,000	광주광역시 북구
이윤재	20,000	충청북도 충주시	이기선	20,000	경기도 광주시	이석재	20,000	충청남도 청양군
7월 구독 및 찬조			이필래	20,000	전라남도 화순군	이원재	80,000	대전광역시 동구
이종세	20,000	서울시 금천구	이홍재	20,000	전라북도 전주시	이유진	20,000	대전광역시 중구
이용문	30,000	충청남도 서천군	이종성	20,000	경기도 남양주시	이성수	20,000	경기도 안성시
이용구	20,000	충청북도 충주시	이용구	50,000	경기도 양평군	이익수	20,000	경기도 군포시
이기수	20,000	경기도 의정부시	이용진	20,000	서울시 성동구			
이준웅	20,000	서울시 은평구	이만석	80,000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원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현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2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59691-01-110
농협은행 : 301-0218-9163-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18年 8月 1日
<제338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玉 載
編輯人 : 李 錫 演
主 幹 : 李 碩 載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